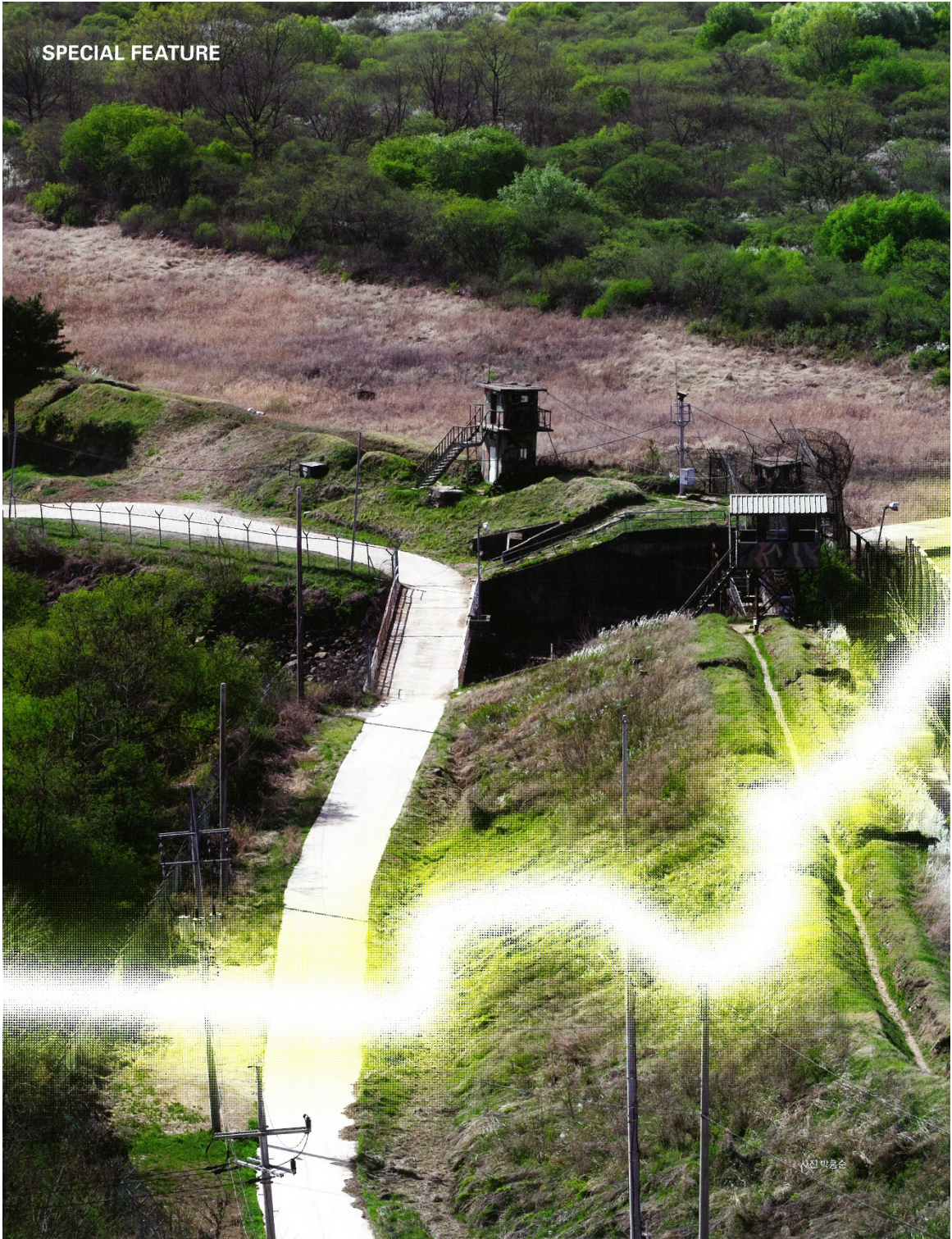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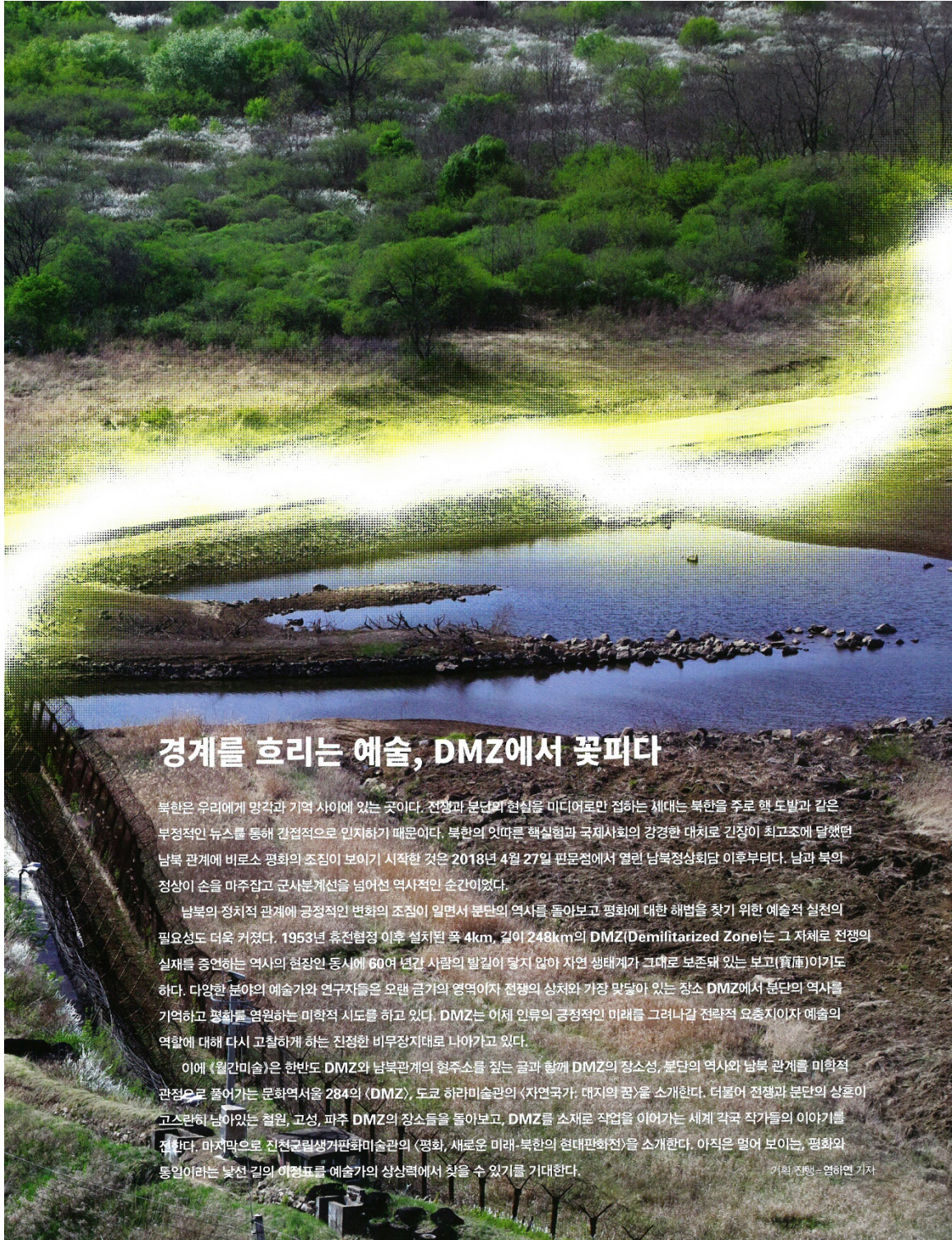


경계를 흐리는 예술, DMZ에서 꽃피다

June, 2019 | 엄하연 기자

page 1 of 8





경계를 흐리는 예술, DMZ에서 꽃피다

북한은 우리에게 망각과 기억 사이에 있는 곳이다. 전쟁과 분단의 현실을 미디어로만 접하는 세대는 북한을 주로 핵 도발과 같은 부정적인 뉴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처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남북 관계에 비로소 평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다.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마주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남북의 정치적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일면서 분단의 역사를 돌아보고 평화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예술적 실천의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설치된 폭 4km, 길이 248km의 DMZ(Demilitarized Zone)는 그 자체로 전쟁의 실재를 증언하는 역사의 현장인 동시에 60여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연구자들은 오랜 금기의 영역이자 전쟁의 상처와 가장 맞닿아 있는 장소 DMZ에서 분단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미학적 시도를 하고 있다. DMZ는 어제 인류의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전략적 요충지이자 예술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찰하게 하는 진정한 비무장지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월간미술)은 한반도 DMZ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짚는 글과 함께 DMZ의 장소성, 분단의 역사와 남북 관계를 미학적 관점으로 풀어가는 문화역서를 284의 <DMZ>, 도쿄 하라미술관의 <자연국가: 대지의 꿈>을 소개한다. 더불어 전쟁과 분단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철원, 고성, 파주 DMZ의 장소들을 돌아보고, DMZ를 소재로 작업을 이어가는 세계 각국 작가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진천군립생거문화미술관의 <평화, 새로운 미래-북한의 현대판화전>을 소개한다. 아직은 멀어 보이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낯선 길의 이정표를 예술가의 상상력에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획: 진행=임하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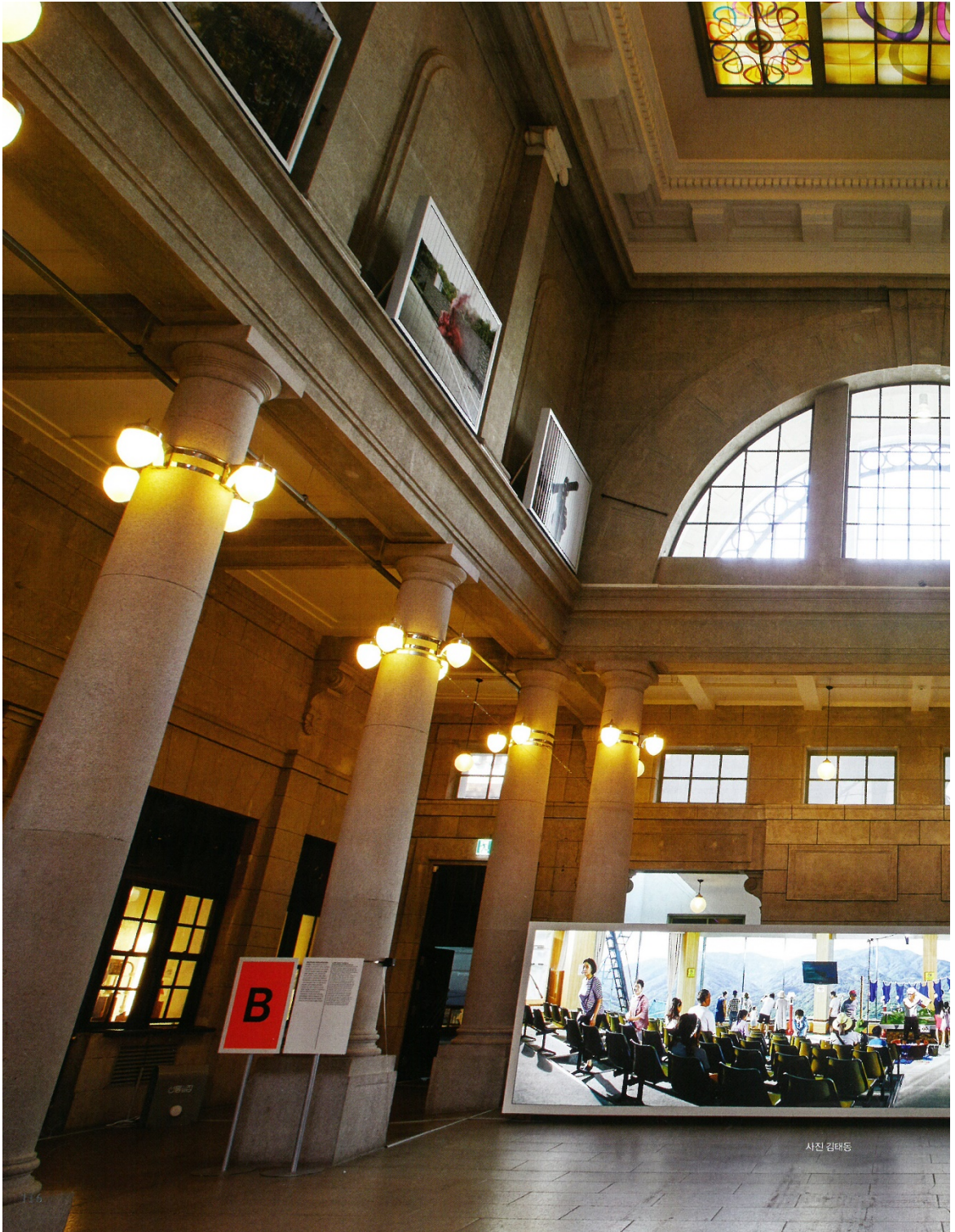


사진 김태동



〈DMZ〉

문화역서울 284

3.21~5.6/6.4~7.7

Part B, 전환 속의 DMZ, 감시초소(GP)와 전망대
(사진 오른쪽)안규철 〈DMZ 평화의 춤〉

철, 나무 2.4×2.4×7.5m 2019

정연두 〈음지 극장〉

솔벤트 프린트, 라이트박스, 소리 10×2.2m 2019

중앙홀에는 현재의 DMZ 모습과 전망대, 그리고 감시초소(GP: Guard Post)의 잔해를 이용한 작업이 설치되어 있다. 2018년 12월 남북 합의에 시범 철수가 진행된 이후 GP는 평화의 시대로 가기 위한 상징으로 탈바꿈했다.

안규철의 〈DMZ 평화의 춤〉은 DMZ에서 철거된 철조망의 잔해를 녹여 만들었고, 병기 감시탑의 형태로 중탑을 구성했다. 남과 북을 가리던 철조망이 평화를 위한 종소리로 울려 퍼진다.

중탑 뒤에 설치된 정연두의 〈음지 극장〉은 동부전선부터 서부전선까지 13개의 전망대 중 강원도 양구의 전망대를 '극장'으로 상징하여 사진 속에 구현한 작업이다. 안보관광을 온 관광객들 사이에서 DMZ에 얽힌 이야기들을 소재로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들의 모습이 보인다.

interview

〈자연국가(自然国家): 대지의 꿈〉(4.13~7.28, 도쿄 하라미술관) 기획한 최재은



최재은 〈이름 부르기〉 세라믹, 거울, 영상 가변크기 2019



사진 김태홍

최재은 작가가 일본 도쿄 소재의 하라미술관에서 2014년부터 기획 진행해온 DMZ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지난 4년 간 작가가 이끌어온 〈대지의 꿈〉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일종의 추동력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에서는 전쟁기념관, DMZ 박물관, 국가기록원 등의 아카이브를 통해 한국전쟁과 비무장지대의 역사를 짚고, 본 프로젝트의 전반부를 구성하는 공중정원, 정자와 탐 및 생명을 위한 증자와 지식저장소에 대한 주요 제안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시계루 반, 이불, 이우현, 송효상, 스튜디오 뭉바이 등 세계 각국의

작가, 건축가, 문학가, 과학자 및 생태학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 전시를 통해 DMZ에서 갈등과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남북관계에 화해의 조짐이 보이면서 DMZ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 생태 연구, 문화관광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2014년부터 DMZ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데, 어떤 계기로 DMZ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최재은은 1953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일본의 소게츠 아트센터에서 수학하고 현재 일본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1986년 이시무 노구치의 천국 조각공원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했다. 전위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인 테시가하라 히로시의 어시스턴트로 일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오래된 시〉(국제갤러리, 2002), 〈루시와 그녀의 숲〉(로맹갤러리, 2007), 〈아스카의 숲〉(하라미술관, 2010), 〈순환이 지속되는 저쪽의 집〉(프라하국립갤러리, 2014) 등이 있다. 단체전으로는 〈상파울로 비엔날레〉(1993), 일본관 대표로 참여한 〈제46회 베니스 비엔날레〉(1995), 〈플랫폼 서울〉(2008), 〈프라하 트리엔날레〉(2008) 〈제15회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2016), 〈제7회 미디어시티서울〉(2012) 등이 있다.



최은은 <증오는 눈처럼 녹는다> 금속 각 135×75×1.2cm 2019

독일의 통일 전후 상황과 통일 현장을 목격한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 올 조국의 통일을 늘 염원해왔다. 통일에 대한 염원을 작업으로 처음 제시한 것이 독일 통일 1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다큐멘터리 <길 위에서>(On the way)(2000)다.

이것은 20세기 인간 사회가 만든 '달한 경계'와 자연 생태계의 '열린 경계'를 대조한 70여분 길이의 일종의 영상시, 혹은 다큐드라마 형식의 작업이었다. 통일 후 격정적으로 변모해가는 베를린이라는 도시 속에서 동서독인들이 공존하기 위해 인내하는 모습들, 유대인들이 이동했던 기차길, 아우슈비츠 수용소, 판문점을 영상에 담았다. 배우 문근영이 11세 때 이 작업에 참여해 판문점 경계선 앞에서 남북을 교대로 바라보며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달한 경계'와 자연 생태계의 '열린 경계'를 대조하는 시를 낭독했다. 이 영상은 전주영화제, 도쿄영화제, 몬트리올 영화제, 그리고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이후 2010년 베를린에서 활동하던 중, 2014년 리얼 디젤 프로젝트에 참여해 칠원 월정리역에서 텍스트 작업 <자연에는 경계가 없다(No Border Exist in Nature)>를 발표했다. <자연에는 경계가 없다>는 <길 위에서>부터 <대지의 꿈> 사이의 공백을 채워준 작업인 셈이다. 또한 통일 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의 경계에 대한 많은 예술가들의 작업을 되돌아

본다면, <대지의 꿈> 프로젝트는 자연스러운 작업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자연국가: 대지의 꿈>에서 세계 각국의 작가들과 함께 다양한 작업을 보여주었다. 특히 DMZ 경계선을 녹여 제작한 <증오는 눈처럼 녹는다>는 평화를 염원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전시 작품들과 전시 제목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대지의 꿈>은 크게 4종류의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약 20km의 공중정원과 그 위, 또는 주변에 설치될 정자와 타워, 종자은행과 지식저장소, 공예도성을 중심으로 한 재래종들의 치유, 그리고 지뢰 제거인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나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작가들로부터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 기반의 제안서를 받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프로젝트의 현실화를 가정한 매뉴얼 디자인 안을 발표했다. 이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장소를 자연이 지배하는 나라, '자연국가'라 명명했다.

하라미술관에서 개최된 전시의 제목은 <자연국가(Nature Rules)>이다. 전시는 다양한 색선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The Story of DMZ>에서는 한반도의 DMZ 생성과정, 즉 한국전쟁부터 현재까지의 DMZ 환경에 대한 역사를 아카이브 형식으로 전달하였다. 특히

휴전협정을 중심으로 현재의 자연생태계에 집중하고자 했다. 아카이브 옆에는 최근의 DMZ 외해 분위기 속에서 경계선의 존재, 즉 철선을 녹여 제작한 <증오는 눈처럼 녹는다(hatred melts like snow)>가 등장한다. 녹인 철을 여러 개의 카펫 형태로 만들어 일종의 징검다리처럼 바닥에 나열했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밟고 걸어들 수 있도록 해 해체된 경계를 의미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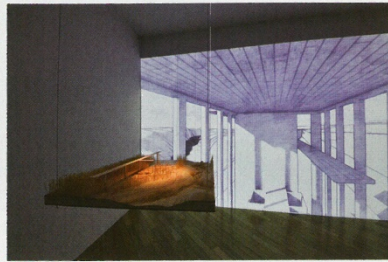
이어서, <대지의 꿈> 프로젝트를 가시화한 본전시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작된 제안서들을 모형, 드로잉, 텍스트, 영상,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로 형상화하여 미술관 내부와 외부에 설치했다. 미술관 외부에는 시계루 반이 공중정원 구조물 안을 1/2의 스케일로, 그리고 이우환이 정자 안을 실제 스케일로 구현해 설치했고, 실내에서는 정자 이미지를 이불의 드로잉과 스튜디오 문미아, 올라퍼 엘리아슨 & 세바스티안 베흐만, 가오마다 다다시의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승효상의 타워 디자인은 <새들을 위한 수도원> 모형과 사운드 및 영상이 어우러져 이상적인 설치로 자리잡았고, 조민석은 철원터널을 이용하여 종자와 지식저장소를 유일무이한 형태로 발전시켰다. 종자은행 매뉴얼은 DMZ생태연구소, 지식저장소 매뉴얼은 뇌과학자 정재승이 제작했다. 우주를 이야기하는 DMZ의 밤하늘 사진은 김태동이 촬영했으며 DMZ 내부 사진은 박종우 작가가 제공했다.



조민석 (DMZ Vault of Life and Knowledge)
설치 가변크기 2019



올라퍼 엘리야스, 세바스티나 베호만
('Condensation Pavilion' model)
설치 가변크기 2019



승효상 (Birds' Monastery)
애니메이션, 모델 가변크기 2017

이와 더불어 <자연국가(Nature Rules)에 대한 법률(Rules) 만들기>라는 사운드 작업을 선보였다. 이 나라(자연국가)의 법은 시(poetry)다.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왜 이 나라의 법이 왜 시인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라의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여기 자연이 다스리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법(Rule)을 제정한다면 어떤 법을 제안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최재천, 이은주, 김홍석, 안소연, 조민석, 나카무라 게이코, 히라노 게이이치로, 다니엘나 모레라 등 여러 작가와 연구자들이 보내준 시를 전시장 여러 곳에 사운드로 설치한 작업이다.

전시장 2층의 마지막 방에는 이 전시의 주제를 함축한 작업 (이름 부르기)를 설치했다.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 중 DMZ에 서식하고 있는 101종의 이름을 명패로 만들어 거울 위에 설치한 작업이다. 마치 진혼제를 울리듯 각자의 이름을 호명하며 거울에 담은 퍼포먼스 설치를 영상화했다. 설치된 명패들 위에는 콩 씨앗을 띄우고 있는 투명한 유리병이 매달려 있다.

이 방의 한쪽 벽에는 종자은행과 지식저장소 매뉴얼이 텍스트 작업으로 설치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철원의 상징인 두루미 한 쌍의 산책

장면 4컷을 담은 영상 <품격있는 존재들>이 상영되고 있다. 이 장소에 놓인 작업들은 서로 관계를 형성하며 생명을 노래하는 한편의 시(詩)의 공간인 동시에, DMZ 안에 존재하는 생명들로부터 평화를 갈망하는 '대지의 꿈'이 함축된 공간이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모든 조형물은 인공적인 재료가 아니라 DMZ내에 존재하는 자연 소재를 재료로 만들어졌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비무장지대 내 5000여 종의 씨앗과 유전자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향후 진행 방향이 궁금하다.

본 프로젝트에 대한 나의 기본 개념은 이곳에 일체의 이물질들을 배제하고 함께 순환되어가는 소재들로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참여 작가들은 DMZ에 존재하는 자연 소재, 즉 물, 돌, 흙, 나무, 바람, 빛, 바람, 소리 등의 소재로 만든 이미지 안을 제출해 주었다. 자연과 조화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환하는 또 하나의 자연을 창조한 것이다.

인류와 자연 간의 창조적 상호작용을 위한 종자와 지식저장소는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생명을 위한 종자와 지식은행은 DMZ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자생하는 생명 5000여

종의 종자, 그리고 지구에서 사라져가는 101종의 멸종위기종들의 씨앗과 유전자 데이터를 확보, 보존하는 곳이다. 이러한 기획을 남북한을 포함한 세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자연 생태계의 보호와 영구적 지속, 그리고 종자의 연구, 확산, 공유 및 순환을 통한 인류와 자연에의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자와 지식저장소 건립의 기본적 의의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인류가 자연을 이용하여 '재시작(Reboot)' 할 수 있는 삶의 최소한의 지식이 보존되어야 한다. 종자와 지식은행은 지구상에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위기나 재앙에 대한 대비책이자 인류의 생존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공에도성, 공중정원파, 종자와 지식저장소 안, 재래종 보존에 대한 제안과 지뢰제거안 등, DMZ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보여줬다. 모든 프로젝트에 선행되어야 하는 지뢰제거안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말씀한 대로 <대지의 꿈>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DMZ와 남북한의 민간인 통제구역에 매설된 수많은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뢰 매설 지역에는 지도도 존재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나, 불행히도 한반도 DMZ와 그



이우환 <Transparent Tea House>
스테인레스 스틸, 와이어, 돌, 면 300×300×250cm 2019



스튜디오 토피아 <Tazia, Bamboo>
실크 실, 금박 170×170×300cm 2019



시계루 반 <Bamboo Passage>
1/2, 500×100×600cm 2019

인근에 대한 지뢰 매설지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M-14(밭목지뢰)라 하는 플라스틱 지뢰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어렵고, 탐지하기도 어려우며 부패하지도 않아 영원히 그곳에 존재하며 죽은의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땅속에 존재하는 플라스틱을 감지하는 시를 제작하여 대지를 스캔하고 지뢰 매설 위치 지도와 매뉴얼을 작성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며 접근하는 방식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전쟁으로 인한 분단을 겪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정치적 테마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 있어 한국 작가들과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시에 참여한 시계루 반, 가와마타 다다시 등 일본 건축가와 작가들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생각과 취지를 가지고 있다. 전쟁이나 분단을 겪지 않은 이들도 한국전쟁 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 DMZ가 아름다운 자연으로 환원된 것에 주목했고, 세계의 분쟁 지역들이 모두 자연의 본성을 통하여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모두

평화가 받아야 하는 기반을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찾기로 했다.

지난 4월 23일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가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국회에서 개최했다. DMZ의 생태를 관리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DMZ의 정치적 활용에 대한 의견을 부탁한다.

DMZ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야 한다는 목표 의식에 찬성한다. 그러나 DMZ는 우선 치유가 필요한 공간이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DMZ의 자연 생태계를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DMZ내 적지분석과 생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DMZ를 지속적으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정교하고 영구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DMZ를 하나의 본보기로 연구하여 나아가는 과정, 즉 치유와 회복 자체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DMZ의 생태계를 지키지 못할 경우, 65여 년의 분단의 아픔 이상으로 한반도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현재 DMZ의 미래는 기로에 서 있다.

DMZ는 갈등과 분단, 개발과 생태계 파괴를 넘어 원래의 '정토'라는 의미처럼 순수한 자연적 생태계가 역사와 공존하는 장소여야 한다.

예술가에게 DMZ라는 공간은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작업의 모티프가 될 수 있고, 예술가의 작업은 우리가 제대로 응시하지 않은 분단의 아픔과 정치적 상황에 귀 기울이게 한다. 향후 작가로서, 기획자로서 DMZ 프로젝트와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본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하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작업을 공유하며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언젠가 북한의 작가들을 초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쿄 하라미술관 전시 이후 계획은?

본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현재까지의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출판물 기획하고 있고, 올해 새로운 참가자들도 4~5명 합류한다. 향후 한국에서 프로젝트의 내용과 결과를 공유하는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영하연 기자

사진 국제갤러리 제공